

# 첫 아이 출산 후 남편이 경험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Husband-Related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Following the First Born Child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부교수 오 제 은\*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Jea Eun Oh

### ◀ 목 차 ▶

I. 서론  
II. 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  
V.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husband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wha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re experienced by Korean husbands (2) how to reform the dynamic from a dyad to a triad relationship (3) how the relationship changes with the experience of parenthood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included six men and the data was gathered through half-structured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Van Manen's analysis guideline. The results were as: First, there was a distinct financial change to stabilize the role of the couple. Second, the husbands' voluntary participation in house work was influenced by the couples' intimacy. Third, the enriching dialogue between couples was related to becoming parents. Lastly, after child birth, husbands felt less attraction toward their wives as women and the sexual relationship was almost completely controlled by their wives.

**주제어(Key Words)** : 첫 아이 출산(first child birth), 부부관계(couple relationship), 부모되기(becoming parents),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가족관계의 역동(dynamic of family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 Jea Eun Oh, Counseling Psychology Major, Soongsil University, 511 Sangdo-dong, Dongjak-gu, Seoul, 156-743, Korea  
Tel: +82-2-828-7204 E-mail: jayoh@ssu.ac.kr

\* 상담심리전공, Counseling Psychology Maj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 I. 서론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구성은 성 인남녀의 결혼을 통해 형성되므로 가족의 최소 구성단위는 부부다. 결혼은 사회적 약속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부부 사이에 '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이다. 결혼 관계는 친밀감과 애착이라는 정서적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일상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 협조를 통해서 가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결혼은 두 남녀의 비 혈연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친족 간의 혈연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혈통과 재산을 보호하려했던 고대의 결혼과는 달리, 현대의 비 혈연관계에 있어서 결혼 제도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인해서 자녀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맺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간의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식 때문에 산다(곽배희, 2002)'는 것을 꼽는 것만 보아도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이 부부관계를 연결하고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 결속을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출생한 이후 부부간의 직접적인 관계뿐 아니라 자녀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 경험이 부부로 하여금 자녀 출생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역동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부부는 배우자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 이자관계(Dyad relationship)로 부터 삼자관계(Triad relationship)로의 역동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즉, 남편으로서의 남편 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남자, 아내로서의 여자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아내(여자)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모-자(녀)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남편과 그와 반대로 부-자(녀)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아내라는 새로운 구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삼자관계를 좀 더 분석해보면,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에 가족 내에는 단 하나의 관계가(남편-아내) 존재하지만,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서 부-부, 부-자(녀), 모-자(녀) 등 두 세계의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가족관계에서의 역동은 출산을 통해 부부에서 부모로 그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점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즉,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이자관계로 부터 '부모-자녀'의 삼자관계로 변화하면서 부부는 배우자의 역할 외에 부모의 역할이 부가되고, 이는 부부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정현숙, 유계숙, 2003).

지금까지의 첫 아이 출산 후 부부의 변화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첫 자녀의 출생을 '부부의 위기'로 인식하여 그 부정적인 결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이경희, 1991). 하지만 최근에는 첫 아이 출산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첫 아이 출산 후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선주, 옥선화, 1993a).

본 연구는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계 역동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모두 여성, 특히 어머니의 입장을 다룬 점에 반하여 본 연구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경험한 주관적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출산의 주 담당자가 여성이고, 주 양육자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남성이 경험하는 출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남성의 경험은 연구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산 후 남편이 경험하는 경제적 변화, 여가와 가사 노동의 변화, 그리고 첫 자녀 육아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가정사가 어떻게 부부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남편의 경험세계를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며 파악하고자 한다.

부부관계의 변화를 주제로 한 본 연구를 위해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이미숙, 1990; 이정연, 1987; 최규련, 1984)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로 정의하고 있었다. 즉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한 객관적 상황과는 별개로 그 상황을 인지하는 부부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 결혼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막 부모가 된 남편이 부모되기를 통한 부부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지가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되는 부모되기는 부부에게 생물학적, 심리적 의미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부부에서 부모라는 역할의 변화를 통해 부부들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은 이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연습이나 간접 경험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기 전환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연구에서 고선주와 옥선화(1993b)는 첫 자녀를 임신한 98쌍의 부부를 1차 조사하고 출산 후 3개월 된 부부 62쌍을 2차 조사한 결과 일치, 만족, 응집성, 애정표현 등의 하위 영역의 결혼적응도 부분에서 모두 부부간의 결혼 적응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양명숙(1993)은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연구를 위해 임신 중인 부부를 1차 조사한 후 자녀 출산 3개월 후 다시 같은 부부를 2차 조사한 결과, 첫 자녀 출산 후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더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첫

아이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선주, 옥선화, 1993b; 양명숙, 1991; 이강호, 2006; 고선주, 옥선화, 1994). 이인기(2002)는 첫 아이 출산 이후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과중한 역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긴장감이 육체적인 피로와 육아로 인한 가사 일의 증가,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개인 생활의 제약 등으로 나타나 여성들에게 역할로 인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모되기로의 전환에서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연구한 이주희(2010)는 임신기 부부관계, 우울감,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에 의해 첫 아이 출산 후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임신기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우울이 낮을수록,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많을수록 첫 아이 출산 후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 만족도의 중요한 변인인 남성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위의 연구들은 부모되기 이전 과정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숙현(1988)은 근로자 계층 부부 32쌍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법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부가 일심동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첫 자녀 출생이 결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의 출산이 시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결혼 초기 시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모전환기의 부부관계의 변화를 다룬 이숙현(1990)은 취업도 2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부정적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우리나라 부부들은 부모 역할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자녀 출생이라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친정 부모, 시부모, 남편 그 외 가사대행자 등의 도움을 받음에 따라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elsky와 Rovine(1983)의 연구에서 첫 자녀 출생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조사 대상 집단의 평균적 변화만을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변화 패턴의 개인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후반기부터 첫 자녀의 나이가 3세가 될 때까지의 4 시점에서 1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 변화 양상을 네 가지 유형, 즉 가속적 감소형(accelerating decline), 직선적 감소형(linear decline), 무변화형(no change), 점진적 증가형(modest increase)로 분류한 후, 각 유형에 속한 집단들의 인구학적 변인, 인성적 변인,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들 중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첫 아이 출산 이후 부모되기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로서 첫 아이 출산 이후 겪는 부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체험적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가 된 후 겪는 부부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아버지 되기에 관한 연구는 이세미(2009)의 논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이 연구는 현대의 사회문화적인 흐름의 급변화로 인해 현대 아버지들이 첫 자녀 육아과정에서 겪는 체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적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아버지의 시각에서 본 경험을 다룰 뿐 남편으로서의 경험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아동과 가족 중심의 양적 연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남편의 입장에서 심리적 체험을 이해하려는 체험적 자료를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웠다. 또한 부부의 부모되기 전환 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으로만 분류하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첫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상황을 체험한 주체자의 관점에서 그 경험 자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실행되었다.

Sigmund Freud를 위시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Oedipal complex와 Electra complex 이론을 구축하여 가족 내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 자녀관계의 역동이 한 개인의 삶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설명하였다. 한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Freud(1934)는 아이들의 초기 동물공포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기인한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전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Freud(1934)는 초자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계승자이며 동시에 인간의 윤리적 요구의 대변자로서 부모의 심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다. 초자아의 형성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Freud(1940)는 초자아가 부모에 의존하여 사는 유아기 동안의 침전물로서 부모의 영향이 지속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초자아가 형성되는 남근기 동안 겪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외부 세계의 일부가 대상으로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포기되고 동일화하면서 자아 속으로 수용되어 내부 세계의 어떤 구성 부분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Freud(1940)는 이성 부모에 대해 느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게 되며, 또한 부모의 모든 가치판단 기준이나 도덕성을 그대로 내면화하게 되면서 초자아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남아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내부 세계의 한 구성 부분으로 만들어서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Carl Gustav Jung 또한 남성의 그림자(Shadow)와, 여성의 아니무스(Animus)가 그 사람의 아버지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융 분석심리학 이론의 한 근간으로 삼고 있다. Jung(1963)은 “아니마(Anima)가 모성적인 에로스(Eros)에 해당한다면, 아니무스는 부성적인 로고스(Logos)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남성의 아니마상이 자기 어머니의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처럼, 여성의 아니무스 또한 아버지의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강조 하였다(Jung, 1968). 이와 같이 Freud와 Jung은 한 인간이 남성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과 경험의 중요성을 각각 역설하였다. 그 외, 가족체계이론의 주창자인 Murray Bowen(1988) 역시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며 이 체계 중 자녀와 어머니의 체계와 더불어 자녀와 아버지의 체계, 남편과 아내의 체계로써 한 가족 체계가 완성된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 안에서 남성 가장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가족 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자녀-아버지, 남편-아내 관계의 역동 변화를 남성 자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즉 변화된 관계를 남성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통해 남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부, 가족의 균형이 있는 관계, 상호 보완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의 이해를 마련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따라서 첫 출산을 경험한 남편이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남성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첫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남편이 경험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첫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의 역동과 변화를 남편(아버지)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첫 출산과 양육과정의 부부관계 변화를 남편(아버지)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 II.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남성가장이 경험하는 출산 후의 변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환원세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경험의 본질을 공유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의 노력이다. Husserl에서 비롯하여 Heidegger를 거쳐 Gadamer에서 완성되는 해석학적 관점

역시 본 연구에서 분석의 한 틀로 삼아, Van Mannen의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이 철학적, 학문적 방법론을 따르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괄호치기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현상학적 물음의 의의를 파악하기도 전에 현상의 본성을 해석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신경림, 2004). 이것을 Husserl은 괄호치기(Bracketing)라 명했으며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부에서 부모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사이에 둔 부부 역할의 증가와 관계 역동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았다. 이에 연구자 본인의 경험을 본 연구 과정에서 괄호치기하기 위해 본 연구자 자신의 부모되기를 통한 부부관계의 변화 경험을 본 연구 질문에 따라 상세히 자가 녹음을 하였고, 이를 녹취하여 본 연구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 권력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는 참가자의 경험에 권력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Gadamer, 2000), 참가자의 생생한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려 했다. 이어 Van Mannen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탐구하며 현상학적 질문을 수정, 재형성하고 경험의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다. 남성가장들의 인터뷰를 거치면서 하나의 인터뷰가 제시하는 여러 개의 분류된 주제들이 후속 인터뷰에서의 현상학적 질문을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했으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상학적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분류되고 구성되었다.

###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첫째, 첫 출산 이후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둘째, 부부가 모두 초혼이어야 하고, 셋째, 첫 출산 전 자녀 입양의 경험이 없는 남편으로 하였다. 또한 첫 출산의 시기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연령 제한 기준은 두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Snow balling(눈덩이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는데, 연구자의 개인적 인적관계를 통해 참가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추천받고, 연구취지 설명문을 발송하였다. 연구 불참으로 인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적 고려에 관한 설명도 첨부하였다. 대상자 중 참가를 결정한 남성들은 자발적으로 연락을 했고 참가자의 편의에 맞추어 약속을 정하고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를 소개하여 연구 참가자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모두 6명이며,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중반에 첫 출산 경험이 있었고, 평균 연령은 34.4.세다.

## 2.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구분하고 연구자의 경험을 가능한 배제한 상태로(bracketing), 현상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은 반구조화 면담 인터뷰를 통해 얻어졌고, 모든 인터뷰는 참가자의 사전 및 현장 서면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반구조화 인터뷰 연구 질문지는 연구 의문의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정교화된 질문들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남편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기 위하여 수입-지출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정서적 부담감, 대가족지원 정도, 문화, 레저생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정서적 경험 등을 질문하였다.

가족관계의 역동 변화를 알기 위해 누가 가족의 중심이 되었는가,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핵가족과 대가족의 변화는 무엇인가, 남편을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부부관계의 역동변화를 알기 위해 부부의 잠자리 변화, 서로에 대한 감정과 기대감의 변화, 현실적인 태도의 변화, 그리고 불만과 만족의 요소들에 대한 경험을 물었다.

인터뷰는 각각 약 40분에서 50분이 소요 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녹취록으로 모두 상세하게 실사되었다. 현장 인터뷰 도중, 또는 인터뷰 분석 중 떠오른 모든 아이디어와 메모 등이 이차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 3. 자료 분석 및 글쓰기

수집된 전체 자료들을 중요한 진술로 줄여 나감으로써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고, 진술들을 유사한 주제별로 묶은 후 이를 토대로 개인들의 경험을 문자 그대로 기술하였다. 먼저 녹취록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를 구분해내고 의미 단위를 보편적 용어로 전환하여 연구언어화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인터뷰에서 추출된 주제별로 의미화 단위들을 범주화한 뒤, 세 번째로 인터뷰들 간의 주제 공유가 가능한 범주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범주화 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 모든 인터뷰에서 공유된 주제들을 다시 범주화 한 후 주제들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인 대주제들을 추출해 내었다. 본 과정은 Van Mannen의 분석과정에 근거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한 조건, 상황, 맥락에 대해 연구자가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에서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 내용 그대로 기술한 것과 구조적으로 기술한 것을 결합했다(Creswell, 1998).

## Ⅲ.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경험은 모두 12개 소주제로 범주화 되었으며, 이는 다시 5개의 대주제로 주제화되었다. 본 장에서는 각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된 본질적 경험세계를 연구 참가자의 진술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설명을 통해 기술했다.

### 1. 경제적 변화가 부부역할을 공고하게 함

첫 자녀 출산 후의 경제적 변화는 예상한 결과였다. 이미 임신 중기에 아내가 퇴직을 한 경우도 있었고, 출산에 압박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가정 경제의 수입원이 남편에게만 의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면서 가정에서의 성역할이 첫 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고정되는 현상을 보였다.

#### 맞벌이에서 홀벌이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후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가진 육아에 대한 독점적 위치가 생물학적 특성이라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역시 이에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얘기를 갖자고 했어요. 신혼 여행 다녀오고 아내가 임신이 됐는데, 임신 5개월쯤에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불안해 지더라고요. (참가자 B)

아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애 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차라 리 얘기 잘 키운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아내는 집에만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낳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참가자 D)

제가 장남이거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아내와 결혼할 때 같이 맞벌이해서 돈 버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했거든요. 근데 애를 낳으면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니까...(중략)... 전장에 나가는 전사가 혼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 그냥 한 명 동지가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 없고, 그냥 뒤에서 갔다와 라고 하고 다 뒤에 있는 거예요. 혼자 갈 들고 나가는 느낌? (참가자 A)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하고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것은 수입이 여성에게는 불평등하고 고용의 안정 역시 남성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신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아내는 결국 출산 후 양육과 가사 일에 전념하게 되는 상황이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에서도 정착되는 현상을 보였다.

### 현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함

홀벌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구조가 변화할 뿐 아니라, 육아 비용으로 지출이 더 증가하면서 가정 경제에 현격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리 예상한 문제이긴 하

지만 한정된 수입 내에서 가정 경제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 연구 참가자들의 보고였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려 해도 시간적 여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집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뭐 뽀족한 수도 없고... (참가자 C)

육아랑 가사 일을 돕기 위해서 과외로 일을 바꿨어요,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참가자 E)

첫 출산을 경험하는 부부의 나이가 3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쓸 시기에 자기계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수입 안에서 자기계발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 참가자들의 진술이었다. 비교적 고정적인 수입보다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가사 일을 돕는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에 따라 수반되는 불안정한 수입이라는 단점도 첫 출산과 더불어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은 후속 출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다.

**육아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적 축적이 어려워짐**

출산과 육아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저축을 늘리지 못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워졌다는 경험을 진술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도움을 받는대거나 이런 건 없어요... 버는 건 일정한데 아이 낳고 돈은 훨씬 더 들어가니까, 더 모을 수는 없었어요. 둘째도 낳아야 하는데 돈이 더 들잖아요. 가장으로서 부담스럽죠. (참가자 C)

우리는 애가 둘인데 아내가 아이를 가르치죠. 남들처럼 영어유치원 이런 건 상상도 못하구요, 점점 돈이 더 들 텐데 장래를 계획할 수 없으면 저축이 돼야 할텐데 그게... 좀 어렵죠. 그런 생각하면 좀 불안하죠. 뭘 좀 더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참가자 B)

한정되거나 또는 축소된 가족 수입에 비해 늘어나는 육아비 지출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부담감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의 전체적 흐름은 연구 참가자들의 가정에서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홀벌이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안정적인 부양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갔다. 아이를 매개로한 아버지 역할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됨을 보여주었다.

**2.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가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끼침**

임신기와 출산 후 가사일의 분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

다. 또한 아내의 가사 노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남편의 몫이 늘어나고, 본가나 처가의 도움을 받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출산 몇 주 후면 가사노동은 오롯이 두 부부만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 남편의 가사노동 참가의 적극성여부가 부부관계의 친밀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가사분담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

대체로 연구 참가자들은 출산 직전과 출산 후 아내가 담당하던 일을 본인이 맡게 되고 출산 후에는 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가사 일까지 분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다.

원래 제가 아침을 챙겨 먹고 다니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애 낳기 전에는 안사람이 80-90%는 챙겨줬거든요. 애 낳고 나서부터는 힘들니까 결국 제가 대중 챙겨 먹거나 안 먹게 되고... 그제 한동안 꽤 힘들었었죠. (참가자 E)

아무래도 제가 잘 안 해보던 거니까, 뭐랄까... 어색하죠. 제대로 못하고 뭐, 애 재우고 있는 아내한테 밥통 들고 가서 물어보죠. 하하.. 그러면 아내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타박도 하고, 짜증도 좀 내고 그러면... 내가 좀 모양이 구겨진다고 할까, 아무튼 그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아내한테 혼나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참가자 B)

아내도 집에서 힘들겠지만 뭐, 남자들이 다 바깥에서 돈 벌고 일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는, 돌봐야 될 사람이 사실 두 명이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 참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일이 좀 안 풀린다거나 그럴 때는 더 그렇고... (참가자 D)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근할 때 아침밥을 챙겨 먹는 일이나 산후 조리하는 아내의 식사를 장만하는 일 등은 가사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에게는 출산을 전후한 일상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남편의 자발적 가사분담이 많아질수록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짐**

출산을 전후하여 남편의 아내 돌봄과 가사분담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퇴근하고 바로 귀가하여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사분담에 참여하는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지는 남편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더 빈번한 경향을 보였으며 더불어 부부관계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말씀드리면 제가 참 나쁜 남편인데 제가 좀 가사 일에 그렇게 많이 못 도와줍니다. 안사람이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하고 간혹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랑 이럴 때 제가 쉬다던가 이럴 때 한 번씩 좀 도와주고 특별히 안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서 다 처리가 능한가보다 해서 좀 많이 못 도와줍니다.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좀 많았죠. (참가자 C)

저는 그냥 거들어주는 역할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많이 일을 도우려고 하죠. 예를 들면 빨래통에 빨래가 꽂혀 있으면 전에는 '여보, 빨래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내가 가서 세탁기에 넣고 '여보, 세제 몇 숟갈 넣어야 돼?' 돌려주고, 그러니까 아내는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아내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가자 B)

일 때문에 제가 많이 바쁘기도 했구요, 사실..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아내가 가사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게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싸움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때부터 좀 관계가 달라지게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가자 F)

위의 세 경우 외에도 나머지 모든 참가자들은 출산 후 가사와 육아의 분담이 아내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경험을 진술했다. 출산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가사노동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배려하고 가사노동의 주체로 참가하느냐의 여부가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결정하는 듯 했다.

**2. 부모되기와 부부관계의 변화**

위에 진술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이차관계로 부터 자녀 출산 후의 삼차관계로의 변화는 가족관계의 역동을 아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이 풍부해짐**

자녀양육을 계기로 해서 자녀의 건강 상태, 아이의 생김새의 칭가 처가 가족과의 유사점, 아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관한 추억 등 부부의 대화 소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진술했다.

조그만 애가 웃는데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영락없이 할머니 닮았어요.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집에 누구는 눈이 어둡고 나는 어릴 적 어땀다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어린 시절 얘기도 하게 되고, 딸아이 낳아서부터 둘이 얘깃거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가자 E)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배우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함**

남편이 단순히 육아에 필요한 일을 나누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쌓고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했다.

아내가 어린이 교육 쪽을 했던 사람이라서 아이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아내 말을 믿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해요. 그럴수록 아내가 더 좋아하죠. (참가자 E)

아무래도 '화목한 가정', 그러면 아빠는 소외되어 있고 아이와 얼마만 행복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셋이, 가족이 다 화목해야죠. 그런 생각하고 그냥 데리고 놀아 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 아내가 흐뭇해하

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서 아내가 더 좋아 보이고... (참가자 D)

몇몇 연구 참가자들은 아이와의 친밀감 형성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경험을 진술했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배우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함**

하지만 또 다른 몇몇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이에게 너무 몰입하는 것을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긴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아내가 너무 아이에게 몰입함으로 인해 남편이 소외된 경험을 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결혼 전에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남자예요. 아버지도 남자 형제만 있는데 저도 삼형제예요. 우리 집안에서 딸이 처음 태어났으니 너무 좋아하고 사실 신기했었어요. 집안이 다 우리 딸아이를 좋아하고 저도 너무 신기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참가자 A)

생활의 모든 중심이 아이한테 쏠리는 거예요. 나도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옷이 없는데 모든 지출은 일단 애 것을 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제 걸 사고 아니면 못 사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구요. 너무 애 하나까 내가 돈 벌어 오는 기계인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참가자 B)

퇴근하고 들어가도 애만 안고 있고, 뭐 애 께까봐 그런다니 할 말은 없지만 사람이 들어가도 나가도 애만 붙잡고 있으니 나는 발소리도 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집안일 거들어 주고 돈 벌어 오고 대접은 못 받고, 요즘말로 존재감이 전혀 없다고 할까요. (참가자 F)

가족의 중심이 아이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가정도 있었고, 남편이 가족 내에서 거부되는 경험을 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자신들의 부부관계보다도 자녀에게 몰두하게 될 때, 그것이 항상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할 점은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에 있어서 과연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적/긍정적 감정의 발생은 어느 정도가 임계점인가?”이다.

**4.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출산은 남성이 경험할 수 없는 여성 고유의 신체적 능력이자이다. 남편들은 아내의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여성의 신체기능이 남성과 다름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여성으로서의 아내에 대해 더 애뜻한 느낌을 가짐**

남편으로서 아내의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성만이 겪어야만 하는 육체적 고통과 어머니로서의 희생

을 송고하게 느끼게 되었다.

산통을 하루 종일 겪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제가 힘들었는데...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그러는데 괜히 자연분만을 하자고 했나, 그런데 아내가 자기는 꼭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픈데 그걸 참고 직접 애를 낳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고, 군대 갔다 온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내가 정말 대단해 보였고 이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는구나 싶고,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할까요? (참가자 E)

아내를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에 대한 진술이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짐**

위의 경험과는 달리 아내의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신비감이 떨어지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 또한 떨어졌다는 경험도 있었다.

아내가 애를 낳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옷도 아무데서나 갈아입고 내 앞에서 막 갈아입고, 하하하. (참가자 D)

애기 낳고 살이 안 빠져요. 나는 그러죠, '우리 마누라 OO이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살이 안 빠지네' 그러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로서 매력은 좀 떨어졌죠. (참가자 B)

애기 낳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대한 신비감이 뭐랄까... 신비감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참가자 F)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성으로서의 아내의 몸을 목격한 경험과 아내의 체형 변화, 그리고 아내가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이 아내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남성이 아내를 신체를 중심으로 한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때는 출산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여성적인 매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아내가 출산을 통해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한 여성으로 인식할 때는 위대한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경험에 대한 진술이었다.

**5. 아내가 암묵적으로 성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함**

출산 후 남편이 겪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부관계의 변화는 성관계에서 드러났다. 남편의 성적 욕구는 출산 전후를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의 경우는 성적 태도가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의 성적 활동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성관계에 대해 아내가 더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변함**

출산 후 대부분의 아내들은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감과 변화된 환경으로 인한 긴장감 등으로 인해 성적 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산이 오히려 아내의 부정적 성적 경험을 치유하고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아내가 잠자리에 대해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성관계가 꼭 애기 낳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동물도 아니고 자녀 출산만 하려고 부부관계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는 출산했으니까 이제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가자 A)

거의 뭐 한 오분의 일로 줄었죠. 더 떨어라. 임신 전에는 사실 신혼이니까, 근데 애기 낳고는 아내가 먼저 원하는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내가 애 키우고 밤에도 여러 번 껴붙이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참가자 E)

아내가 사실 어렸을 때 성폭행까지는 아니지만 누구한테 성적으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성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이 낳고 나서 그런 것이 치유가 됐나봐요. 오히려 애기 낳고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참가자 D)

출산 후 아내와의 관계 변화 중 성적 활동의 소극성은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험한 변화였다.

**아내의 성관계 태도에 따라 변화되는 부부관계**

아내의 성적 활동의 변화와 아내로부터의 성관계 거부 경험이 단순한 육체적 욕구의 불만을 넘어 부부관계의 친밀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아무래도 임신 기간 때는 조심해야 하니까 나도 조심하게 되고, 출산 후엔 적어도 몇 달은 당연히 피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욕구는 쌓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때가 되었어도 아내가, 사실 피곤하기도 하겠죠. 애기 젓 먹이고 밤에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가가면 아내가 '그냥 자라' 그러거든요. 하하하. 그러면 뭐 껴떡거리는 것 같아서 그냥 자는데 그런 일이 몇 번 되니까 저도 자존심 상하죠. (참가자 F)

아내에게 자꾸 거부당하니까, 솔직히 아내에 대해 어느 부분 마음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느껴야 되니까요. 하하하. 아내를 여자로 느끼면 그 다음에는 다가가게 되는데 또 거부당할 것 같고 그러면 저만 다치잖아요. 뭐 그런 걸로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여자로 안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가자 A)

아내의 성관계 거부가 연구 참가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험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가 자신과 완전한 성적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첫 출산 후 아내와의 성관계의 변화가 부부관계의 어떤 맥락에서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해주는 경험이었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남성가장의 경험세계를 Heidegger의 의미세계로 해석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의미세계는 'Others-관계세계'라고 볼 수 있다. 첫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남편이 겪는 관계세계는 혁혁하게 변화한다. 그는 이제 관계의 책임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되었고 타인들로 부터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당연히 가족 내에서의 관계 역동도 다르게 경험하는데 첫 아이의 출산을 통해 남성가장들이 보고한 경험은 관계의 변화, 자신을 제외한 모든 Others와의 관계세계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Place-장소세계'의 의미를 들 수 있다. 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휴식을 위한 조용하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책임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다. 더 많은 가사일과 더 많은 수입을 요구하는 공간으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집은 부부만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위한 양육공간으로 주기능이 변했다. 더불어 낮의 노동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반감되는 공간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Body-신체경험'에 대한 의미세계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역할과도 관련된 주제인데, 지저귀 갈기, 우유먹이기, 안아주기과 같은 아주 본능적인 아버지로서의 신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몸의 감각의 변화를 경험한다. 또 생산 가능성이 확인된 한 남자로서 출산 후 성생활의 제약은 남성의 몸에 대한 억압을 가져온다. 출산 후 성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아내가 쥐게 되는데 생산 가능성이 확인된 남자로서 아내를 곁에 두고도 성생활을 제약해야 함으로써 남성의 몸에 대한 억압을 가져온다. 첫 출산 후 남성가장으로서 경험하는 신체경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몸 경험을 하게 했다. 앞 장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살펴보자면, 제시된 주제화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첫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남편의 경험은 몇 가지 중요한 토론점을 제시한다.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의 부담과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다(기획재정부, 2010).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직접적인 출산과 육아 담당자인 여성의 결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첫째, 출산에 따른 남편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이 출산 중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예전에 비해서 출산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긴 했지만, 출산 후 남편은 경제활동을 아내는 가사 일을 분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고정되는 경향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대표적 또는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기능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

임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지원과 육아휴직비 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 시스템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첫 출산 후 부부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사 노동의 분담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아기의 탄생은 엄마들에게 굉장한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에게 묶어버린 자기의 인생, 고유한 자신의 삶이 희미해져 버리는 듯한 공허함과 부자유스러움,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손승아, 2000). 이러한 아내의 부정적 경험 과정에서 남편이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은 아내의 육체적 고달픔을 덜어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심리적 고통까지도 이해하고 보살피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해서 아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편의 적극성과 자발성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현격하게 변화하는 이유는 남편의 가사 노동을 통해 출산 후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아내가 남편으로 부터 정서적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인생주기에서 출산과 같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겪으면서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간의 심리 정서적 배려와 돌봄이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부부 중 한 쪽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의 부정적 감정을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토론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이기도 한데, 부부간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부부 중 한 쪽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밀접도의 임계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즉 부부 한 쪽과 자녀의 밀착도가 배우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관계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서적으로 단단히 결속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정도와 그 관계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특히 아내와 아이의 밀접도와 몰입도는 대부분의 남편들에게 소외감과 질투심을 유발하고 부부관계에 균열을 내는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변화된 부부의 성관계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임신 기간과 출산 후 몇 개월 간 부부의 성관계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생리적 본능과 성적 욕구를 억제해야만 하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출산 이후에도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한 육체적 피곤으로 인해 남편의 성적 요구는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에게 성적 요구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남편의 반복된 거절 경험은 관계의 좌절감으로까지 발전하

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아내에 대한 육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정서적 감각까지도 철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부부의 성관계는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사가 될 수 없기에 부부간의 성적 결정권은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산과 더불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이기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됨으로써(손승아, 2000), 성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양육과 가사노동에 더 쏟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편의 성적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빚어냈다. 남편들은 이 과정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좌절감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이 점에 대해 부부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 V.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본 연구의 참가자가 모두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직업 역시 사무직 종사자들이어서 농어촌, 도시 빈민이나 생산노동자의 경험을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따른 첫출산 연구가 후속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경험을 따로 분리하여 한쪽 성의 경험세계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하나의 사실을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게 다르게 혹은 비슷하게 경험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부부의 출산 경험을 통한 부부관계의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경험의 본질과 그 해석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 현상학적 연구였으나 첫 출산 이후의 가족관계가 어떤 역동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해결-고착되는지를 그 맥락을 탐색하는 근거이론방법론을 사용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 참고문헌

고선주, 옥선화(1993a).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1(3), 55-67.  
 고선주, 옥선화(1993b).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연구2: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3), 127-141.

고선주, 옥선화(1994).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Ⅲ. **대한가정학회지**, 32(5), 83-96.  
 공진수(2006). 아버지됨에 관한 연구: 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배희(2002). 한국 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획재정부(2010).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서울: 기획재정부.  
 김선영(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 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41-57.  
 김수경(2009).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을 위한 과제 개발에 대한 질적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미(200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가정 내 역할 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김유정(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김희진(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마미정(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은정 (2009). 성만족과 결혼만족의 관계: 친밀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숙자(1991). 가족과 사회문제: 가족과 직업. **가족학논집**, 3, 143-160.  
 박평식(2009). 부부친밀감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선아(2009). 중년기 남성의 부부 친밀감이 생활만족도 및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선영(2001). 결혼 초기 부부관계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승아(2000). 첫 어머니됨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인아(1983). 임신과 출산 시 아버지-남편으로서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림(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회지**, 3, 31-53.

양명숙(1993).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연구(1): 부모역할관에 대하여 첫째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4), 53-66.

이강호(2006). 가족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1). 부모기로의 전환에 관한 문헌연구. **원우론집**, 2(18), 209-228.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생활과학연구논집**, 10(1), 27-71. 성십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이세미(2009). 첫 아버지 되기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2161-2181.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과 권리**, 12(2), 189-210.

이인기(2002). 부모 전이기 어머니의 어려움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부관계, 부모 성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4(3), 99-108.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9.

이주희(2010). 첫 자녀 출산 후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수진(2006). 결혼 초기 부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 유계숙(2003). **가족관계론**. 서울: 신정.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81-102.

최규련(1993a). 가족생활만족.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가족학** (pp.285-315). 서울: 하우.

최규련(1993b).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홍길희, 황정해(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 301-317.

Belsky, J., Spanier, G. B., & Rovine, M.(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77.

Creswell, J. W.(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공역). 서울: 학지사. (1998년 원저발간)

Freud, S.(1934). *Selbstdarstellung*. Internationaler Psychoanalytischer Verlag.

Freud, S.(1940). *Abriss der Psychoanalyse*. International Zeitschrift fur Psychoanalyse und Imago. 25.

Gadamer, H. G.(2000). *Wahrheit und Methode: Grundzue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진리와 방법I**. 이길우(역). 서울: 문학동네. (1965년 원저발간)

Jung, G. C.(1963).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pten*. Zurich.

Jung, G. C.(2009). *Man and his symbols*. Laurel Book. **인간과 상징**. 이윤기(역). 서울: 열린책들. (1968년 원저발간)

Kerr, M. E., & Bowen, M.(2005).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on Bowen Therapy*. W. W. Norton & Company.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공역). 서울: 학지사. (1988년 원저발간)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접 수 일 : 2011년 4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1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8월 6일